5·18 문학상 소설부문 심사평

지난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 물리적인 시간으로 셈하면 겨우 반년쯤 지났을 뿐인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인지 심리적으론 많은 날들이 흐른 것만 같다. 그동안 쌓여왔던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쌓이다 쌓여 한 순간 폭발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세월호가 떠오르고 예정보다 일찍 조기 대선을 치르는 오늘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지만 때문인지 정의, 민주주의, 시민의식, 같은 지켜야 하고, 지킬만한 '정신'에 관한 논의가 많고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5·18을 생각하고 그 정신을 기린 문학상을 심사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었다. 투고된 124편의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새삼스럽게 확인한 것은 소설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5·18 정신과 주제의식을 형상화해야 하는 문학상의 특징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응모작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품고 있었고 그걸 형상화하는 과정 중 리얼리즘적인 글쓰기와 그에 걸 맞는 표현의 진지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은 진지한 주제는 반드시 리얼리즘적으로만 접근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었다. 만약 일어난 사건을 말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는 소위 '리얼'한 것에 지나치게 가치를 둔다면 그것이 르포와 기사 ,역사를 기술한 기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심사위원들은 5·18 정신과 주제의식을 드러내되 동시에 소설 고유의 재미와 가치를 지닌 작품을 찾으려 했다.

심사위원들을 각각 3편씩 본심에 올렸고 합의를 거쳤다. 여러 논의와 이야기가 나왔다. 앞서 말했지만 응모작 대부분이 5·18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다루고 나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주제와 소재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이나 주제에 대한 작가의 진지함은 거의 모든 작품에 고루 깃들어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의 창작소설'로서 의미 있게 표현했느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 대부분의 소설들이 후일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사건의 실제적인 기록이 소설의 서사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주제를 다뤘으면 한다.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본질적인 것들과 현상적인 것들을 분리하여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허방>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때문에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이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주제의식도 좋았다. 그러나 비극적 사건 앞에서 보여주는 화자의 태도가 너무 방어적이었고 감상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것이 주제의 크기를 축소 시켰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날>은 주제의식이 돋보였다. 문장도 좋고 표현력도 좋았다. 그러나 대사가 너무 많았다. 대사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제가 대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 문제였다. 그 점을 보완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최종심에 <그리고 신발을 위한 냉장고>와 <가루눈>을 올렸다. <가루눈>은 5·18이 한 가족에게 남긴 상처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개인적 상처로만 간직하다가 그것이 역사적 상처였다는 걸 알고 인식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소설로만 보자면 너무 평이했고 구성이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신발을 위한 냉장고>는 심사위원들이 이견 없이 당선작으로 결정할 수 있던 수작이었다. 5·18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다. 때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혹은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본질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상됐다. 상처와 흔적을 남기는 것들에 관해 소설적으로 에둘러서 잘 형상화했다는 평도 있었다. 또한 신발로 상징화하고 그것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설정은 소설에서 가장 돋보인 부분이었다.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열심히 소설을 써서 5·18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인식을 안겨준 소설을 완성해준 모든 작가들에게 고마움 또한 전한다.